

투데이 칼럼

고창은 판소리의 첫 수도다!

수도(首都)란 넓은 의미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통일, 여성, 복지, 교육, 문화 등)를 포함하는 한 나라의 통치기구가 있는 도시를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판소리에 있어 첫 수도는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

고창에는 판소리의 이론가이자 논평가, 후원가로서 대한민국 판소리 성립과 전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동리 신재효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날까지도 그는 판소리 흥망성쇠의 책임을 오롯이 혼자 짊어지고 있다 할 정도로 시대를 뛰어넘는 독보적 인물이다.

고창이 판소리의 첫 수도라는 몇 가지 이유를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판소리 규범을 정립하였다. 신재효는 단가(廣大歌)를 통해 판소리의 이론적인 측면을 밝히는 한편, 판소리 창자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인물치례', '사설치례', '독음', '너름새'의 4대 법례를(입법)제시했다.

또한 흠어져 구전으로 내려오는 가사를 채집해 조선역사 최초로 판



전민중

고창군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소리 여섯마당을 개작 정리하여 당시와 후대 창자들이 교범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판소리 창자를 평했다. 조선 후기 전국 소리꾼들은 판소리 규범에 어긋남은 없는지와 그릇됨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고창을 방문하여 신재효의(사법)판단을 청했다.

일례로 당시 "어전광대가 되려면 고창 신재효 문하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와 "전주대사슴놀이에 참여하려 오는 광대는 먼저 고창에 들러 신재효의 평가를 받아야 장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다.

셋째, 판소리 창자 등에게 각종 행정지원 했다. 신재효는 판소리가 천한 소리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양반 정서를 가미하고, 등편제와 서편제의 장·단점을 조화시켜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민족예술로(통일)승화시켰다.

또한 판소리를 남성만의 전유물로 알고 여자를 소리꾼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에 첫 여류 명창인 진채선과 허금과 등을 배출하여(여성) 권위 신장에도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신재효는 근검절약으로 모은 많은 재산을 활용, 전국의 창자와 연습생 등을 불러모아 숙식을 제공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게 함으로써 창자들의(복지)증진에 힘썼으며, 동리정사에 전국 최초로 판소리 집단(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전문 소리꾼을 끊임없이 배출하고 가르쳤다.

특히, 그는 춘향가를 남창, 여창, 동창으로 분화시켜 맞춤형 예술을 육성하는 등 판소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함으로써(문화)행정이 해야 할 일을 이미 100년 이상 앞서 실천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신재효가 있어 고창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된 판소리의 첫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창군에서는 올해 신재효와 관련하여 산재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총망라한 신재효 총서 발간을 시작으로 동리정사 복원에도 첫 발을 내디딤으로써 판소리의 학문적 중심지와 문화 선도지로서 위상을 드높일 계획이다.

민중들의 숨결과 애환이 녹아있어 동화정신의 토대가 되어왔던 판소리 첫 수도인 고창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독자제언

안전을 위해 안전띠 착용은 필수!

차량 내 모든 좌석의 안전띠착용 의무화를 작년 9월부터 시행했다.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6%로 저조하다.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차량 충돌 시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머리와 가슴 등에 충격을 입지만,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경미한 부상만 입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 높다고 한다.

또한 최근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망자 수는 173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의 25%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일주일 중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이 평균대비 1.3배 높은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지정하고 있다.

매월 1회 안전띠 착용 캠페인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는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되지 않기 위해 안전띠를 착용하기보다는, 이 기회에 내 안전을 지키고 내 가족을 위한 '좋은 습관'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최혜진 고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건물에 조명으로 비친 유럽연합 깃발



지난 18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국제 조영 축제 '스포트리아트'가 열려 한 남성이 유럽연합(EU) 영상이 표시된 건물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개막한 올해의 국제 조영 축제 주제는 '유럽의 빛'이다.

사위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설

전북도의 예산 증액을 위한 행보

전북 발전은 예산 증액이 말한 다. 증액된 예산 확보가 없다면 지역 발전 계획은 그 어떤 것이라도 무용하다. 아무리 거창하게 공표를 했다해도 그것은 그렇다. 그래서 여기 다시 또 할 말이 있다. 지역발전을 약속하던 프로젝트 사업들이 어찌 이상하다. 아직도 터덕거리거나 행방이 묘연한 사업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사업 발굴과 함께 청사진 그리기가 요란했는데 그뿐이라면 곤란하다. 전북도는 발전 청사진 공표에 걸맞게 예산 확보를 위해 힘

내야 한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프로젝트 사업 발굴에 대해서 짚어볼 바가 있다. 사업 발굴이 능사가 아니지 싶어서 말이다. 사업을 발굴하면 지역의 발전과 연결돼야만 하는데 그게 없기에 하는 말이다. 물론 이같은 지적은 전북도와 전발연을 탓하자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문제는 그 사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구체적인 추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진짜 프로젝트 사업이 아니냐는 물음을 주고 싶은 오늘이다. 전북도는 믿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도민들은 그것을 기

대하고 있다.

내년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소폭 증액은 의미가 없다. 겨우 물가 인상을 반영하는 정도의 증액으로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 군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연 공장 폐쇄를 생각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대폭 증액이 있어야 한다. 원상 복구에 준할 만한 변화는 지원 약속이 아니라 손에 쥐어지는 충분한 돈이 말을 한다는 이야기다.

전북도가 정부의 추경예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짚질을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이다. 도민들은 그에 걸맞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산업부와 환경부와 복지부 등을 방문해 실국장들을 상대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말했는데 매우 잘한 일이다. 그레도 전북도는 가일층 노력해야겠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을 반드시 추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낙후를 떨쳐버리려면 각각의 사업들을 본계도에 올려놓아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올려놓아야만 한다.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라도 전주 구도심 변해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요즘이다. 전주 특례시 지정 요구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지역을 보면 다들 광역시가 있지만 우리 전북 지역은 광역시가 없다. 그래서 예전에 김영삼 정부는 전주의 광역시 승격을 운을 띄우듯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인구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던 것이다.하다못해 텅털리 시능이라도 인정해 줄 만큼 인구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었던 것이다.

전주가 전북 발전을 위해서 뭔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할 시점이 다. 그래서 또다시 물어볼 것이 있다. 구도심 활성화 작업 말이다. 그게 어찌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구도청사 공터에 전라 감영 건물 짓는 등 예를 쓰고 있지만 그밖의 구역들은 변화가 없으니 하는 말이다. 구도심 활성화 플랜을 보고서 주거 환경 개선 등 인구 유입 효과가 크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싱겁다.

전라 감영 말고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까닭이다.그동안 청사진 그리기가 요란했는데 다른 쪽들은 잠잠하니 더 기다려야 하는 것

인지 답답하다.

전주시가 예를 쓰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시민의 기대치에는 못미치고 있는 것 같다. 전주시가 지난날 천명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시일이 어느만큼 지났으면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아직은 미적거리려는 게 역력하다. 뜬 들이는 식으로 길게 끌지 말라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수년 전부터 가장 인간적인 플랜 5G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인간적인 플랜 5G를 위해서 힘찬 추진을 보였으면 한다. 앞으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로만의 성찬이 반복돼선 안 되겠기에 하는 당부이다. 전주시는 '도시공간 재창조'도 천명했으므로 실천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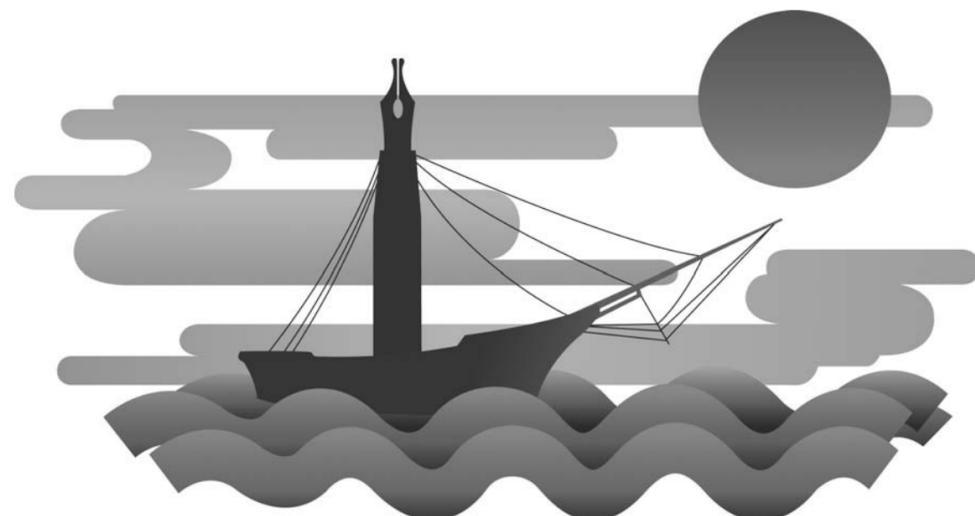
전주시는 구도심지의 환경이 어떤지 먼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구도심지 중 일부인 서노송동 지역은 사람이 안 사는 폐가가 많다. 도로에서는 폐가들이 안보여도 높은 빌딩에서는 흉물스런 모습이 다 내려다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